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소중히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5월 2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불기 2540년에도 어김없이 아기 태지로 부처님이 나투셨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1달여 동안 전국은 봉축무드에 싸였었다. 부처님을 닮고자 수많은 발원을 했으며 갖가지 다채로운 행사로 세상에 부처님오심을 일깨워 알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불교계 최대 명절이 끝난 이 회향의 싯점이 바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크건 작건 다짐하고 쌓았던 서원과 공덕을 생활속에 돌리는 것이다. 남이 잘못한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잘한 대가조차도 남에게 돌리겠다는 자비심을 실천해야 하는 단계이다. 우리는 모든 행사를 회향식으로 끝맺어오지 않았던가. 회향정신을 다시 새겨본다. (편집자 주)

공덕을 회향하면…

모두 다 회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 부터 중생의 뜻을 수순하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누리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돌려,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한다. 나쁜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착한 일은 모두 이루어지며, 온갖 나쁜 일의 문은 닫아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활짝 열어 보인다. (화엄경)

선남자여, 어떤사람이든지 조그마한 보시를 하고라도 능히 증상심으로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을 내어 얻는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면 그 이익은 다할 때가 없으리라. 만일 향 하나를 보시하더라도 마땅히 이런 뜻을 내어라. (범등경)

보살은 부처님이 설한 최상의 진리를 듣고 마음 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중생에게 설법하여 회향한다. (화엄경)

보살에게는 네가지 선행(善行)이 있다. 첫째는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실망내지 않음이요, 둘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함이요, 셋째는 가르침을 따라 능히 실천함이요, 넷째는 보리에 회향함이다. (화엄경)

만일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좋은 옷을 베풀어주면 그 옷을 베풀어준 인연으로써 그 태어나는 곳이 훌륭하리라. 또 사랑할만한 물건을 베풀면 천상에 태어나서 마음대로 하리라. 이제 내가 사는 이 궁전을 보라. 허공을 타고 자유로이 노닐며 몸은 마치 금덩이같아 백명의 천녀중에 뛰어났거니 이러한 복과 덕을 잘 살펴보라. 이것이 회향중의 제일이니라. (탄금경)

본래 그대들을 구제하고자 나라와 도성, 눈과 머리, 처자식과 손 발을 사람들에 수없이 보시하면서 이제 비로소 해탈을 얻어 위없는 대작법을 성취했거니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설법하여 널리 감로의 도를 열어주리라. (미륵삼부경)

"생명존중 참자유 세상을"

24일 부처님오신날 전국사암서 봉축법요식

'연등축제' 시민·불자 5만명 참여

불기 254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지난 24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 전국 각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봉축위원회는 이날 조계사에서 석주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등 종단 지도자와 서돈각(진흥원 이사장) 이홍구(신한국당 대표) 박상규(국민회의 부총재) 서석재(조계사 명예신도회장) 의원 당선자등 정·재·학계대표, 신도등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요식을 개최했다.

'마음을 청정하게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봉행된 법요식에서 월하 종정스님은 석주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허공이 내외가 없듯이 심법 또한 이와같다"며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진여의 이치를 통달해 화합과 평등의 세상을 이룩하자고 설했다.

이에앞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은 어떠한 사상 제도 권력에 의해서도 구속되거나 억압받아서는 안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위해 이땅에 오셨다"며 "각자 선자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동체대비행을 생활화하여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전국의 각 사암도 이날 법요식을 갖고 육법공양과 관불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어 저녁에는 자역봉축위와 사암별로 인류평화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제등행렬을 펼쳤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법요식에 앞서 19일 동대문운동장에서 보신각까지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 · 7면〉

〈이준엽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지난 24일 전국 각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불자들은 이날 사찰을 찾아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며 모든이의 행복과 남북통일을 기원했다. 〈조계사=고영배기자〉





◇ '신리의 미소'를 머금은 국내 최고(最古)의 순금불상(사진 왼쪽)은 연화대좌 위의 입불로 머리위에 화염문양의 광배가 보인다. 높이 10.6㎝의 금동탑은 지붕돌에 풍경이 매달려 사실미를 더해주고 있다.

국내 最古 순금불상 공개

나원리 석탑서 발견…금동탑 4기도

지난 3월 경북 경주시 나원리 오층석탑(국보 제39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초기 금동제 사리함에서 국내 최고의 순금제 불상이 나왔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21일 금동사리함 내부에 대한 정밀 보존과학처리 결과 금동소탑 4점, 순금제 소형불상, 목제 소탑 1점, 사리 15과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다.

순금불상은 높이 4㎝, 무게 22g으로 가느다란 눈매에 미소를 머금고 연화대좌 위에 서 있는 입불로 수인(手印)이 정교하고 세련된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되고 있다.



◇정관스님



◇이홍구 대표



◇종호스님



◇유영구 청장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 20구좌

'미륵반가상' 보급 동참 각계에 확산

본사가 전개하고있는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내기 운동에 이홍구신한국당 대표가 20구좌를 동참하는등 각계의 호응이 늘고 있다.

23일 현재 총 241구좌가 접수된 이 운동에는 정관스님(재단법인 불심홍법원 이사장)이 7구좌(금정중·해동중·학산여중·동래중·동호여상·해운대중·홍제중), 유영 강서구청장 3구좌(서울대미대·서울고·경기여고), 유석어린이회 2구좌 등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동참해주신 분

△지인 삼척 관음암 주지: 삼척여고(1구좌) △도훈 진도 쌍계사 주지: 인천여고 인하사대부고(2구좌) △종호 실천불교승가회 스님: 부산 덕문여고(1구좌) △이홍기 온천랜드 대표: 신기중(6구좌) △류재만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서울고(1구좌)

〈5월23일 현재 총 241구좌〉

어떻게 추진되나

◇보급기간: 1996년 12월31일까지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수령학교 지정 가능(지역학교·출신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어떻게 참여하나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다음주 휴간 81호 6월12일자로 발간

화보 : 연등축제 이모저모 7면
바조 · 김흥국 2002년 기약 15면
조계종 '불교문화 세미나' 13면
화순에 불교 실버타운 1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별지부록 타블로이드 4면 발행

